

31-33

지문 유형 - 현대시

지문 정복법 - 시는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과생들이 문학쪽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어렸을때부터 쌓아온 책읽은 양에 비례하는 능력치라서 문학 종류의 책을 읽은 경험이 적은 학생들은 어려워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찌라고? 그럼 틀리라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해결방법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문학작품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좀 읽어보자. 검은건 활자, 흰건 종이 이런식으로 읽으면 답이없다. 화자와 화아일체를 해서 애가 무슨생각으로 이 시를 썼을지, 지금 시적상황에서 화자가 어떤상황인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으라는 뜻이다. 문학이 약한 사람들은 고1,2,3 기출에서 문학작품만 다 꺼내서 이런식으로 읽으려고 애를 써라. (난해한 시는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음 특히 국a에서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국어기본개념을 알아야한다. 영탄법, 설의법, 시적허용, 공감각적시상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줘서 시를 먼저 마음으로 읽고, 그다음에 시를 분석할 때 이 개념들을 이용해 적으면 실력이 팍팍늘 것이다. 단시간 내에 늘지는 않는다. 하루에 몇 개씩 꾸준히 해야한다.

31번

답 3번 - 1연에서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서 영탄법과 설의법을 사용했고, 시 전체적으로 화자 혼자만 등장하고 대답하는 청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 1번 - 자조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모순도 드러내지 않는다.

보기 2번 - '하롱하롱'은 꽃잎이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음성상징어)이며, 의성어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쾌한 분위기 또한 아니다.

보기 4번 - 감각적 이미지(시각적-'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날') 은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지않다.

보기 5번 - 동일한 문장형태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순환의 의미도 나타나지 않는다.

32번

답 4번 - ㄹ에서 열매(결실)와 가을(계절적으로 수확의 계절) 임을 통해 이별의 경험이 내적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보기 1번 - ㄱ은 때를 알고 이별하는 화자의 모습을 '아름다운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내적인 방향을 드러내고있지 않는다.

보기 2번 - ㄴ은 봄이 지나가면서 나의 사랑도 함께 지고있다(이별로 인해 사랑도 끝났다고) 라고 적혀있다. 지나간 사랑에 연연하고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회한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 3번 - ㄷ은 '녹음'을 통해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봄이 지나고 계절은 저절로 지나서 여름이 온 것이다.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빈민에 가득찬 화자의 상황을 볼 수 없다.

보기 5번 - ㄹ은 '성숙'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화자의 성숙을 나타낸다. 화자가 성숙해서 '과거와 다른 오늘의 나'가 된 것인데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3번 (이런 유형은 먼저 시를 읽기전에 보기를 읽고 문제를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

답 2번 - 화자의 사랑을 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화자의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선지 1번 - 가야할 때(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임)는 시 후반부의 성숙의 계기가 된다. 보기에서는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선지 3번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은 모순적 의미를 띠고 있다. 여기서 이별의 결과(결별)에 대한 긍정적 의미(축복)을 담고 있다. 보기의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선지 4,5번 - 보기의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와 연관 지을 수 있다.